

파키스탄 - 진즈의 대일 수출에 도전

파키스탄 굴지의 방직기업인 “크레센트 · 그룹(Crescent · Group)”의 진즈 전문 생산공장은 방직, 로프(rope)염색, 데님직포, 진즈봉제제품 중고(中古)세탁 가공까지 일관 생산할 수 있는 공장으로서 일본시장으로의 진즈 수출에 도전하고 있다.

이 기업은 미국기업과 크레센트가 합관(合辦)형태로 출발하였는데, 그 후 크레센트 · 그룹이 모든 주를 사들여, 지금은 크레센트가 100% 출자회사로 운영하고 있다.

진즈의 연생산 능력은 520만 벌이며, “리바이스”, “카레라”, “무스탕” 등 세계 유명 브랜드로부터의 OEM(구매자 브랜드로 생산) 방식으로 생산하여 유럽, 호주 등으로 수출하고 있다.

데님은 8 14.75온스(ounce)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데, 그 중에서도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은 베이식 · 데님(basic denim)으로 14.75온스 데님이라고 할 수 있다. 이 공장은 방직으로부터 봉제, 중고 가공에 이르기까지 일관 생산이 강점이며, 공장마다 엄격한 품질관리를 실시하여 품질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.

이 회사에서는 “그 동안 주로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었는데, 지금까지 진즈 생산에의 노하우가 그 나름대로 축적되어, 품질 등이 까다롭다는 일본시장의 신사용이나 부인용 진즈제품에 도전하려고 한다”는 의지를 밝혔다. 이 회사가 주문을 받아서 완제품을 납품하는 리드 · 타임(lead time)은 45일이며, 고객에 대한 서비스, QR(Quick Response : 신속대응), 엄격히 관리된 품질 등을 강점으로 하여 일본시장을 공격할 예정이다.